

불자 세상보기

구멍 뚫린 공항 보안 대책이 절실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 검색, 출국심사에서 환전, 사우나, 휴대폰 로밍 등의 생활 서비스까지 다양한 공항운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될 틈 없이 촘촘해 보이는 인천공항에서 지난달 21일 중국인 부부가 출입국관리소와 출국장 경계에 있는 유리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밀입국해 보안 문제에 빈틈이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베트남인도 환승구역에서 머무르다가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지난 3일, 잠적한지 5일 만에 검거됐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경비방안이 따라 뚫렸다는 점에서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석 달 전 중국인 한 명이 느슨한 감시를 틈타 직원 전

용 통로로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1년 1월 러시아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자살 테러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2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터키 이스탄불의 사비하코크첸 공항의 계류장에 있던 여객기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청소원 2명이 다쳤으며 이중 1명이 나중에 숨졌다. 또한 주변에 있는 항공기 5대도 피해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9.11 테러 역시 자체히 들여다보면 공항의 보안검색에서부터 커다란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 담당자는 안일하게 검색했다. 결과론적 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보안검색을 철저히 했더라면 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요즘 IS집단의 잇따른 테러로 인해 전 세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불안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보안 감시의 문제다. 공항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시설이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이기에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공황테러에 대비해 보안관련 시스템의 담당 전문조직의 독립 및 전문화와 세밀한 검색을 위한 보안 검색 장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번 일에서도 보안을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공항의 출입국장과 보안검색은 용역 회사가 담당하며,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권심사는 법무부 관할이며, 면세구역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관리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의 경비 보안은 다수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이처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디에서나 그러하듯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으며 상호 배타적

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환승객과 미탑승 정보 등을 비롯하여 공항과 항공보안 등과 같이 국적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과감하게 공유하는 내실 있는 정보 공유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철저히 보안검사 및 수사하는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국제공항답게 체계적인 보안 교육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밀입국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항객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이익 및 안보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보안을 강화하다보면, 공항이 용객들에게 다소 번거로운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를 일이다.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가? 편리한 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내실의 보안 역시 튼튼한 외유내강의 모습을 기대한다.

社說

불교계 국제 행사 진일보 '기대'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조계종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 달간 전문리서치기관 'INR플러스'에 의뢰해 내외국인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통계들이 도출됐다. 기원대회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기준 만점에 5.8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점 만점도 환산시 80.12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내용과 질적 수준이 5.8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5.8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화문 광장이란 환경요인은 5.73점으로 4가지 질문 사항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눈여겨 볼 점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6.05점)이 종교인(5.80점)보다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6.32점)이 내국인(5.72

점)보다 만족도가 높아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종교적인 행사를 넘어 하나의 축제 행사이자 대회로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가의 용이성과 안내표지판, 편의시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내국인의 경우 행사준비기간 확보 및 일반인 중심 행사가 부족했음을 꼽았고, 외국인의 경우 통역 및 영어 안내 등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한국불교계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과 비종교인에게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처럼 언론 매체 홍보와 일반대중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외국인에 대한 영어 안내 보강 등이 보강돼야 한다. 이를 보강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대규모 국제행사 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불교계 국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국경 없는 봉사회' 외국인 포교 새 모델

부산 흥법사에서 외국인 봉사자들로 구성된 '국경 없는 봉사회' (가칭)가 2월중에 출범된다. 10여명으로 시작할 이 봉사회 구성원들은 출신 나라와 직업군도 다양하다. 티베트서 7년간 불교 수행을 이어온 미국인 동국대 교수인 에블리 켈리 교수를 비롯해 티베트, 몽골, 인도 등에서 온 동국대 교환학생, 캐나다인까지 모두 봉사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봉사는 외국인들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쌓게 한다.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한국불교문화를 깊숙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장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 오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 '국경없는 봉사회'가 앞으로 담당할

역할은 수행이다. 흥법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수행을 위한 지도를 한다. 법회도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조한 즉문즉설 형식의 법문과 체험 위주가 된다. 외국인들은 일방적 형식의 수동적 법회 보다는 대화하며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능동적인 참여를 선호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중심점이 될 봉사회의 역할에 벌써부터 주변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들은 이제 봉사와 수행으로 외국인들 가운데 중심점이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불자들을 포교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봉사를 통한 외국인 포교의 새 모델 모델로 부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

발언대

조계종 · 선학원 문제 제언

부산 묘관음사 주지 서강 스님이 불교계 언론으로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에 전문을 게재하며, 향후 사부대중의 관련 의견 개진을 기다린다. <편집자주>

선학원, 전체 분원장의 뜻을 들어라



서강 스님 묘관음사 주지 길상선원장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이사진과의 지루하고도 불관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두 집단이 벌이는 궤변행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자책감이 들어 평소 생각을 적어본다. 먼저 조계종 현 집행부의 선학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몇 가지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선학원 재산이 조계종 재산을 출연해서 형성됐다고 보는 견해인데 나는 이 점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됐고 현 대한불교조계종은 1%2년에 석우대종사를 초대종정으로 하여 창종했다. 역사적으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선학원 설립 당시의 스님들이 후에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 모여 대한불교조계종을 창종했을 때 주요 구성원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만 분명히 설정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다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과거 범행 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재직 시절 승려증을 발급했던 일이라든지 조계종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고난 후 다른 곳에 절을 짓고는 종단재산으로 귀속하지 않고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한 상당수의 사찰이 있음을 인정한다. 당시 선학원이 곧 조계종, 조계종이 곧 선학원이라는 심리적 등식관계가 설정돼 있었던 시절이었다. 다만, 재단법인은 민법에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만큼 따로 승려증 발급 운운하는 이른바 재단법인의 종단식 운영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선학원 임원진도 별민이라는 결과를 마치 기다린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승려증 발급 안내문을 띄우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번 두 집단 간의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종헌, 종법, 불교도로서의 근본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위에서 동조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처신해서는 곤란하다. 두 집단이 갈라서서 제 갈 길을 따라 가야한다면 그 전에 꼭 다음과 같은 아류다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선학원은 분종이나 존속이나를 묻는 전체 분원장 회의로 소집하여 분원장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 결과 과반수를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견을 좇아 대다수가 분종을 원하면 미련없이 탈퇴하여 새로운 종단과 집행부를 구성하면 될 것이고 그 반대로 현 이사진을 포함한 소수만이 분종을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현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다시 총무원 집행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총무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선학원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

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과정에서 먼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분종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총무원 집행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와 선학원 입장을 지지하는 자들로 나누어진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방송을, 지면광고를 몇 회에 걸쳐 방송, 게재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역사 앞에 그 정통성을 확보할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한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나 절집이나 개혁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지만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을 얘기하고, 온갖 좋은 가치와 정반대로 사는 이들이 그런 좋은 가치를 아무런 부끄럼없이 얘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선사(禪師)들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꿈에서라도 생각이나 하셨을까? 가탄가비(可歎可悲)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손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30cm (액자전체 50cm×40cm)
• 청국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 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神通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선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인 청국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국 | ■ 판매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